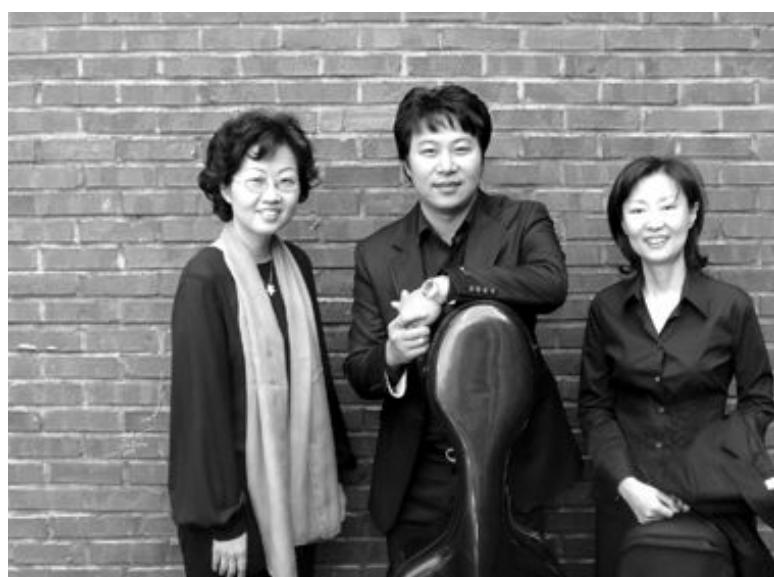


문화

클래식 앙상블

가을 끝자락

광주를 물들이다



피아노 트리오 'GU(Gwangju University)'로 활동을 펼칠 김정아·김창현·현순이(왼쪽부터)



올 들어 다양한 구성의 클래식 그룹들이 속속 창단되고 있어 지역 클래식 음악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솔리스트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로 다양한 편성으로 팀을 구성, 함께 연습하며 또 다른 클래식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피아노 트리오, 현악 4중주단, 여성 성악 앙상블, 피아노 듀오…'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솔리스트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로 다양한 편성으로 팀을 구성, 함께 연습하며 또 다른 클래식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여성 성악 앙상블- '더싱어즈' 피아노 트리오- 'GU' 현악 4중주단- 'LANG' 등 속속 창단 연주회

우선 오는 14일(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창단공연을 앞두고 있는 여성 성악가 앙상블 '더 싱어즈'가 눈길을 끈다.

조선대 이한나 교수를 회장으로 한 '더 싱어즈'는 광주에서 활동중인 중견 여성 성악가 15명이 의기투합한 앙상블이다. 보통 클래식 연주 그룹들이 학연 등으로 구려지는 데 반해 '더 싱어즈'는 다양한 학교 출신의 중견 성악가들이 모인 게 특징이다.

특히 '사랑의 선율을 노래하는 남자들', '광주솔리스트 앙상블' 등 남성 성악가들의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는데 비해 다소 침체된 여성 성악가들이 전문 앙상블을 구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회원은 구성희·김미옥·김진남·김순미·나혜숙·박하양·이한나·조정은·박지현·구복희·최은정·이환희·유형민·노현숙·김혜미씨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영화 '시네마 천국' 중 '엘라 판타지아', 로시니의 '춤', 김규환곡 '남촌', 멜리비의 '꽃의 이중창', 아비의 '댄싱 퀸' 등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 팝송,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오는 24일(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 'GU(Gwangju University)'는 피아니스트 김정아, 첼리스트 김창현, 바이올리ニ스트 현순이씨

등 광주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이 구성한 피아노 트리오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드보르작의 '파아노 바이올린 협주'를 위한 트리오 4 번 '덤끼'와 김선철곡 피아노 트리오곡 '얼마야 누나야 주제의 의한 '다이 알로그'를 선보인다.

특히 김정아씨는 이화여대 선후배 관계인 이랑씨와는 피아노 듀오 'Ah & Rang'을 구성, 지난 6월 창단연주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기 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그밖에 9명으로 구성된 여성챔버

싱어즈 '루스노비'와 현악 앙상블 '나인 스트링스'가 예비 사회적 예술기업인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속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플루티스트 양진씨가 이끄는 광주모이즈플루트 앙상블도 창단 연주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연(바이올린)씨와 김재은(바이올린), 윤소희(첼로)씨로 구성된 'LANG 현악4중주단'은 지난 10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공연 무대에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기 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그밖에 9명으로 구성된 여성챔버

싱어즈 '루스노비'와 현악 앙상블 '나인 스트링스'가 예비 사회적 예술기업인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속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플루티스트 양진씨가 이끄는 광주모이즈플루트 앙상블도 창단 연주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성시화운동본부 연합현신예배

오늘 남구 겨자씨교회

광주시민의 복음화 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광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정재 장로) 연합현신예배가 11일 오후 7시 광주 남구 봉선동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연합현신예배에는 서울 명성 교회 김삼환 목사가 주 강사로 강연하며 광주성시화운동본부 임원과 14개 허리클럽(직능별 단체) 회원 등 3천여명이 참석한다. 연합현신예배에 앞서 오후 6시에는 광주성시화운동본부 제7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2009회기 활동상황 보고, 감사와

회계보고가 이어지며 2010회기 임원 선출도 있을 예정이다.

목회장 허리를 렘회장 윤정중, 법조인 허리를 렘회장 임내현, 평신도 허리를 렘회장 표형섭, 문화예술 허리를 렘회장 변지유, 경제인 허리를 렘회장 김국용, 언론인 허리를 렘회장 김용옥, CEO 허리를 렘회장 윤귀환, 직장선교인 허리를 렘회장 주남식, 여성단체 허리를 렘회장 안행강, NGO 허리를 렘회장 김용배, 사회복지 허리를 렘회장 공동영, 청년 허리를 렘회장 이성일, 대학생 허리를 렘회장 이종석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5603-7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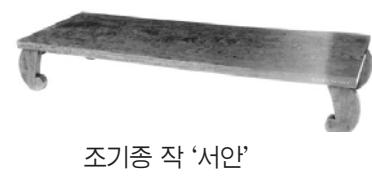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장인의 혼 담긴 전통공예 전시

장동 무형문화재 전시장

광주시 무형문화재 기능협의회(회장 조기종)는 오는 17일까지 광주시 동구 장동 무형문화재 작품전시장에서 장인의 혼이 담긴 전통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무형문화재 조기종, 이춘봉, 최영자, 이애설, 문상호, 안명환 선생이 참여해 가구, 악기, 음식, 볶 등을 전시한다. 화류소목장 조기종 선생은 단아한 멋과 곤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서안(書案·책을 올려놓는 책상)을 선보이고, 악기장 이춘봉 선생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는 오



조기종 작 '서안'

동나무를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가문고와 가야금 등을 전시한다.

또 음식장 최영자, 이애설 선생은 육포와 오징어를 잘라 멋을 낸 페백·이바지 음식과 대추와 밤 등을 맛깔스럽게 쌓아 올린 대추고임 등을 선보인다.

문의 010-6823-678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바이올린)씨와 김재은(바이올린), 윤소희(첼로)씨로 구성된 'LANG 현악4중주단'은 지난 10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공연 무대에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기 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그밖에 9명으로 구성된 여성챔버

싱어즈 '루스노비'와 현악 앙상블 '나인 스트링스'가 예비 사회적 예술기업인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속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플루티스트 양진씨가 이끄는 광주모이즈플루트 앙상블도 창단 연주회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민중미술 정희승씨 7년만의 외출

5·18기념문화관서 12~25일 개인전

화투에 담긴 우리시대 풍속도 담아

80~90년대 민중미술을 선보였던 정희승씨가 12~25일 광주 5·18기념문화관 전시실에서 7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정씨는 '도원으로 가는 길을 묻다'를 주제로 화투에 담긴 우리 시대의 풍속도를 선사한다.

서민들의 생활 속 모습을 그린 조선시대 민화처럼 화투를 소재로 재미와 멋을 더한 사회의 자화상을 담은 작품들이 있다.

대부분 작품이 100호 이상의 대작이며, 화투의 강렬한 색채를 그대로 형상화해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화투 속에 등장하는 꽃과 달 등을 그대로 차운한 뒤 자동차와 밥 그릇, 인물 등을 그려 넣었다. 화투에 매겨진 순번은 1월, 2월 등 각

각 12개월의 달 수를 뜻하는데, 이를 작품 속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

2월을 뜻하는 화투패를 배경으로 외제 자동차를 그려 넣은 '꽃사철'은 꽃이 피는 화려한 불날의 풍속도를 형상화하고 있다. 부자들은 꽃구경을 가지만 가난한 대리운전 기사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부자가 타고온 외제차에 유인물을 붙여야 하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또 '공산토월'은 8월을 상징하는 화투패를 배경으로 가난한 한 아이를 등장시킨 작품이다. 보름달 안에는 하얀 쌀밥이 담겨 있지만 강마른 아이의 그릇에는 밥 한 푃 남아 있지 않다.

이 밖에 함께 민중미술을 했던 동료 작가인 조정태, 임남진씨 등



'공산토월'

을 화투패 안에 그려 넣어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희망을 표현했다.

정씨는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전국 청년미술제, 민중미술 15년전, 5월문화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 민족미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457-051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향·국악원

공연자 공개 모집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국립립 예술단체가 2010년 함께 무대에 설 공연자를 모집한다.

광주시향은 2010년 협연자 선발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오는 28일 광주시향연습실에서 개최한다. 오디션은 광주·전남 지역 출신 고졸 이상 음악인을 대상으로 열리며 성악과 기악으로 나눠 진행한다. 접수기간은 9일부터 25일까지며 이메일(jayok@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510-9336.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은 2010 상반기 금요상설 공연 '우리춤 우리소리'에 출연자(단체)를 공개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지역문화와 한글문화에 기반을 둔 기악·성악·춤으로 전통·창작 공연을 개최한다.

장덕고는 11일 이 작품을 시청각실 옆 벽면에 설치해 아이들에게 한글의 우수함을 일깨워주는 교육 자료를 쓸 계획이다.

장덕고 입관표 교장은 "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이 일선 학교에 기증됐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지역문화와 한글문화에 기반을 둔 기악·성악·춤으로 전통·창작 공연을 개최한다.

장덕고 입관표 교장은 "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이 일선 학교에 기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전 '글'섹션에 전시됐던 '한글 전기'는 가로 1천26cm, 높이 294cm, 폭 45cm 크기의 대형 벽면설치 작품이며, 훈민정음 제작 원리를 그려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립의 발성기관을 본떠 만든 한글 자

음을 구강구조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한 교수는 폐막과 함께 작품 기증 의사를 밝혀 재단이 광주시교육청의 주천을 받아 올해 초 개교한 장덕고에 설치하게 된 것이다.

장덕고는 11일 이 작품을 시청각실 옆 벽면에 설치해 아이들에게 한글의 우수함을 일깨워주는 교육 자료를 쓸 계획이다.

장덕고 입관표 교장은 "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이 일선 학교에 기증됐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지역문화와 한글문화에 기반을 둔 기악·성악·춤으로 전통·창작 공연을 개최한다.

장덕고 입관표 교장은 "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이 일선 학교에 기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제전 '글'섹션에 전시됐던 '한글 전기'는 가로 1천26cm, 높이 294cm, 폭 45cm 크기의 대형 벽면설치 작품이며, 훈민정음 제작 원리를 그려낸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립의 발성기관을 본떠 만든 한글 자

영화 / 안 / 내

메가박스

콜롬버스시네마

하미시네마

씨네스전대

제일시네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영.국.사.거.리. ④ 1544-0600

1588-7841 상담원면결 병행-(1년 or 2년)-0번

고객상담 고객감동 www.hamichinema.co.kr 1588-9120
전대후문 하미스포트릭스 267-7777색깔있는 영화신화 www.cinus.co.kr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새로운 기쁨 www.prinuincinema.com/www.jelichinema.co.kr
충장로 3기 ④ARS 전화예매 227-1960